

오늘 성경은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그는 육신의 병도 중한 사람이었지만, 그와 함께 마음의 병도 간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어떻게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지 살펴보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가득 채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나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보십니다. 그리고 6절에 그의 병이 오래된 것도 아셨다고 합니다.

우리 삶에 소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빠져갈 때 내 주변에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고, 나와 함께 하는 사람도 없고, 나의 마음을 아는 사람도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왜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만물을 그를 통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통해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시편 139~1~6절, 예레미야 1장 5절, 히브리서 4장 15절 참조)

둘째, 예수님은 말씀으로 나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8년된 병자는 자신이 절망하게 된 문제의 원인, 그리고 해답을 나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자신의 삶의 답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누군가 도와준다면, 그리고 내가 누구보다 먼저 저 베데스다에 들어간다면 문제가 해결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인생에 답을 나는 알고 있어요. 그대로 되지 않아서 그렇지 저는 답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이 사람 어떻게 치유됩니까?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서 치유받습니까? 누가 그를 도와주어서 치유가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믿어지길 구하십시오. 내가 구하는 그 방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수님은 은혜가 풍성한 분입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 이름이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벧이 집이란 뜻이고, 헤세드라는 말이 합쳐져 있습니다. 이곳이 은혜, 자비의 집인데, 이곳에 사실 자비는 없습니다. 가장 치열하고, 경쟁하며 서로 자비는 찾을 수 없는 곳이 베데스다였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은혜의 집에서, 어떻게 진짜 은혜를 경험하고 치유와 회복을 맛보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은혜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요한복음 1장 14절) 그가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찾지도 않았고, 예수님께 낫기를 구하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이 그를 먼저 아시고, 찾아오셔서, 그를 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아름다운 변화에 대한 소망, 갈망이 다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내 마음, 생각, 말과 행동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길 소원합니다.

암송

이번 주 외울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통독

이번 주 성경 통독

10/7(월)	10/8(화)	10/9(수)	10/10(목)	10/11(금)	10/12(토)	10/13(주일)
합 2-3, 습 1-2	습 3, 학 1-2	속 1-6	속 7-11	속 12-14, 말 1-2	말 3-4, 마 1-2	마 3-6

QT

이번 주 QT 말씀

10/7(월)	10/8(화)	10/9(수)	10/10(목)	10/11(금)	10/12(토)	10/13(주일)
호 5:1-15	호 6:1-11	호 7:1-16	호 8:1-14	호 9:1-9	호 9:10-13	호 10:1-15

나눔

목장 나눔 문제

1.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닫게 되거나 은혜 받은 것을 나누어 주세요.
2. 38년 된 병자와 자신이 닮은 모습이 있는지 돌아보고, 있다면 무엇인지 나누어 주세요.
3. 내 삶에 예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실 부분을 나누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